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2019년~2020년 활동
총회보고서

정 기 총 회

2021.2.1.(월) 오전 11시
동고송 사무실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 목 차 □

I. 식순

II. 보고

- i) 성원보고
- ii) 개회선언
- iii) 서기지정

III. 안건 심의 · 의결

- i) 2019 · 20년 감사보고 승인
- ii) 2019 · 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 iii)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iv) 기타 안건

vi. 개정된 정관 내용

v. 이사 및 회원 현황

VI. 폐회선언

I. 식순

- 일시 : 2021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동고송 사무실(동구 갈마로 6)
- 참석 : 이사 및 회원

- 식순 -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년도 사업 보고
- 안건 심의 및 의결
- 개정된 정관 내용
- 이사 및 회원 현황
- 폐회선언

Ⅱ. 보고

성원보고

유용상 이사장이 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공표하다

개회선언

이사장이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서기지정

이사장이 회원 조세경 씨를 서기로 지정하다

Ⅲ. 안건심의 · 의결

안건심의 의결

▶ 2019 · 20년 감사보고 승인

2019 · 20년 이무성 감사이사의 감사보고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 2019 · 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유미정 사무국장이 2019 · 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보고를 하고, 전원 합의로 승인하다.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황광우 상임이사가 2021년 사업보고 및 예산(안) 보고를 하고, 전원 합의로 승인하다.

vi. 개정된 정관 내용

현 행	개정안
<p>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u>연임할 수 있다.</u></p>
<p>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9조(구분 및 소집) ①(현행과 같음)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u>후 2개월 이내</u>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u>이메일 SNS 등 전자문서 포함하여</u>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5조(결산) 본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35조(결산) ①본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u>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u>) 본회는 당해 연도의 <u>기부금 모금액 및 주요 활동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u></p>

v. 이사 및 회원 현황

황광우 상임이사가 이사 및 회원 현황에 대해 보고하다

VI. 폐회선언

의장은 기타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2021년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감사보고서 승인

주문사항 : 2020년 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감사보고서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정관, 결산서, 회계장부에 기초하여 2020년도 (기준기간 2020.1.1~2020.12.31)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서류 등에 의한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기준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수입·지출결산 및 업무(사업)처리가 전반적으로 적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회계와 사업부문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부문에 있어서는

- ◇ 회계장부(금전출납부, 월별수지결산서, 영수증철)가 일반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기록 회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 ◇ 수입, 지출 그리고 거래기록이 회계책임의 분리(Duty of Separation)에 따라 향후 점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 ◇ 인문교육과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연대 사업이 동고송 정관의 목적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사업에 있어서 계획-집행-평가(Plan-Do-See)에 따라 환류(Feed-back)의 단계를 거칠 것을 향후 제안합니다.

2021년 2월 1일

감사 이무성 인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귀중

2019년~2020년 사업 활동 및 결산(안)

주문사항 : 2019년~2020년 사업 활동 및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광주이사 상견례(2019.4.9)

동고송(冬孤松)은 도연명의 詩 ‘동령수고송(冬嶺秀孤松)’에서 따왔습니다.

“봄물은 사방 연못을 채우고(春水滿四澤),
여름구름은 산봉우리에 가득하네(夏雲多奇峰).
가을달은 떠올라 환히 비추고(秋月揚明輝),
겨울 산마루에 소나무 홀로 빼어나네(冬嶺秀孤松).“

찬 겨울에도 우뚝 선 소나무처럼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은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헤쳐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열네 분의 이사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동고송 창립식 및 곽병찬 작가 책잔치(2019.4.19.)

동고송 창립식(이사장 유용상)을 개최하였고, 이어 곽병찬 작가의 신간 『향원의청』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어 동고송 창립과 곽병찬 작가의 출간회를 기념하였습니다.



황지우 시인 문학강연회(2019.7.18.)

전교조 광주 국어교사모임 교사들과 함께 동고송 회원들은 황지우 시인의 시를 감상하면서 시를 창작하게 된 내력과 시 감상에 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역사답사기행(2019.6.29~30)

조현중 전 국립광주박물관 관장의 안내로 '나주영산강 일대 고분'을 탐방하고, 이종범 전 조선대 교수의 해설로 '불회사와 미천서원'을 답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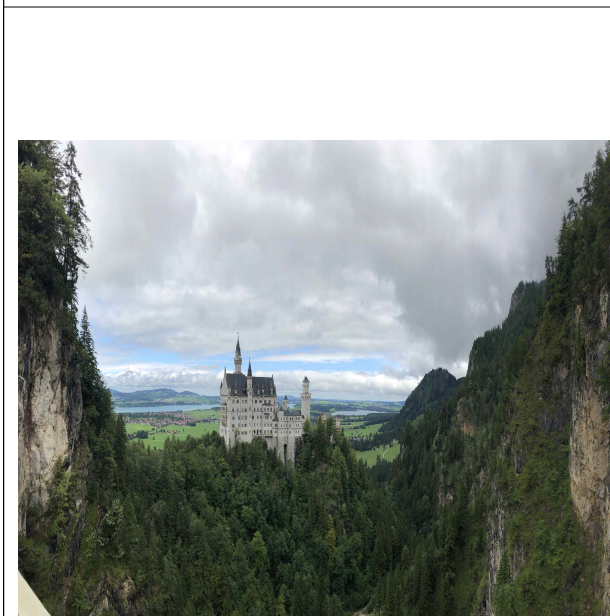
유럽인문기행(2019.8.19~8.29)

동고송 회원 28명이 참여, 10박 11일의 여정으로 독일 · 스위스 · 프랑스 인문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인문기행(2019.8.19~8.29)

(여행기 참조)



2019년 8월 유럽 인문 여행

일정 : 8월 19일-8월 29일

여정 : 독일(뮌헨-노이슈반스타인 성), 스위스(취리히-루체른-융프라우-제네바-바젤), 프랑스(물루즈-스트라스부르그), 독일(트리어-라인강-하이델베르그-로텐부르그-프랑크푸르트)

이번 유럽 여행은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유럽여행사 Euroscope** 임창노 대표의 기획과 협찬으로 이루어진 여행이다. 레닌과 아인슈타인, 칼뱅과 니체, 마르크스와 괴테의 흔적을 찾아 나선 인문 여행이기도 하다.

8월 19일 (월)

이번 여행에 동행하지 못해 마음이 아플 친구를 불러내어 포장마차에 갔다. 우리는 만나면 할 말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새벽 2시, 광주 고속 터미널에 도착하니 낮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니 인천 공항이다. 우리는 E12 앞으로 갔다. 누군가 여권을 준비하라고 주문하였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여권을 챙긴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뒤져보았으나 가방에 여권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때 누군가 공항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공항에서 어슬렁거릴 수 있는 시각은 9시 40분. 임시 여권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하는 것이다. 나는 여섯 번째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상황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확률은 50%였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었다. 동료들이 나 때문에 비행기를 놓칠까봐 그냥 광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광주에 돌아가 여권을 챙기는 일은 별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 홀로 독일 행 루프트 탄자를 무사히 탈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자신이 없었다. 심란했다. 하지만 일단 티켓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돌아오는 하행 버스에서 후회의 상념이 마구 떠올랐다.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왜 이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버스 안이 답답하기까지 하였다. 여권을 어디에 두었는가. 집에 두었나, 연구원에 두었나? 핸드폰이 없는 나는 이런 경우 무척 난처하다. 광주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올라갈 인천행 고속버스를 예매하였다.

오마이, 이미 밤 12시 차가 다 예매되어 버렸다. 임시 차 한 대가 남았고 좌석이 한 석 남았다. 워매 ……

택시를 타고 연구원으로 달려갔다. 예상대로 여권은 책상 좌측 상단에서 고이 주무시고 있었다. 이제 열 두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나는 헤겔의 『역사철학강의』를 읽기로 하였다. 일종의 오기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오기 말이다.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헤겔의 역사철학강의』를 들여다보았다. 그때 영화 ‘봉오동 전투’가 떠올랐다. ‘봉오동 전투’ 같은 영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 즉시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갔다. 터미널 시지브이(CGV)에서 영화를 관람하였다. 영화는 과장이 심했으나, 나름 좋은 선택이었다. 12시까지 또 시간이 비었다. 주역 64개의 이름을 외우기로 했다. 터미널 복도를 오가며 나는 패명을 외워나갔다. 중천건, 천택리, 천화동인, 천수송, 천산둔 ……

8월 20일 (화)

새벽 4시 다시 인천 공항에 내렸다. 공항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커피숍을 들렀다. 커피를 마셨으니, 탁자에서 책을 읽을 권리가 확보되었다. 나는 주역 64개를 외웠다. 택천괘, 중택예, 택화혁, 택뇌수, 택풍대과, 택수곤, 택산함, 택지취 ……

7시가 되었다. 독일 행 루프트탄자가 발권을 개시하는 시각이다. 70대 여성들이 왈자지껄 떠들면서 먼저 줄지어 섰다. 나는 그 줄의 맨 앞에 섰다. 여권과 예약 서류를 당당하게 제시하였다. 티켓을 받았다. 당당하게 검색대를 통과했다. 탑승구 43에서 대기하였다. 내가 무사히 발권을 하였음을 먼저 간 동료들에게 고지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기다리는 동안 주역 64개를 외웠다. 화천대유, 화택규, 중화리, 화뇌서합, 화풍정, 화수미제, 화산려, 화지진. 주역을 읽다 누웠다. 잠을 자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났다. 9시가 되니 발권이 시작되었다. 이제 독일을 가는 거다. 과연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비행기는 이륙하였다.

이을호의 『논어』를 꺼내 읽기로 하였다. 수 십 번을 읽었으나 아직도 낯선 구절들이 있다. 버려두었던 몇 구절들과 친하게 되어 좋았다. 3시, 뮌헨 공항에 마침내 도착하였다. 낯선 복도를 따라 이리 저리 가다 보니 출구가 나왔다. 반가운 얼굴이 서 있었다. 8호선 전철을 탔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제는 관광을 잘 하였냐, 오늘 오전은 어디에 갔느냐,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뮌헨 시청은 마리엔 광장에 있었다. 뮌헨의 마리엔 광장은 체코의 프라하 광장과 아주 비슷하였다. 광장의 크기며, 하늘을 찌르는 첨탑이며,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것이며, 중세 유럽의 고도는 다 비슷하였다.

비가 한두 점 내렸다. 어제 아침 헤어진 일행과 다시 만난 것은 오후 5시였다. 벗들은 나에게 반가운 미소를 보내주었다. 빗줄기가 제법 굵었다. 가이더는 자유 시간을 주었고, 우리는 흠뻑 젖었다. 맥주 집에 들렀다. 주문을 했는데 좀체 술은 나오지 않았다. 안주

는 더욱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것이란다. 독일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 사회란다. 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단다. 재촉하지 말라. 그렇게 느리게 사는 게 독일이란다. Langsam(천천히) ……

다시 모였고, 우리는 마리엔 광장 한 켠 음식점에 들렀다. 수프와 생선 튀김이 나왔다. 먹기 힘들었다. 식당은 혼잡도 하였다. 잘못 온 식당이었다. 7시, 버스는 우리를 뮌헨의 외곽으로 옮겼다. 숙소는 호텔이 아니라 여인숙이었다. 이 밤의 열락을 위해 나의 방을 개방하였다. ‘벗들이여, 다 오라!’

8월 21일 (수)

오전 6시에 일어났다. 인근은 농촌이었다. 독일엔 산이 없다. 구릉과 평야와 산림이다. 끝이 없는 들판에서 나는 악을 썼다. ‘아악아 ……’ 돌아오는 길에 보니 밤사이 사슴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식사는 가난하였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요구르트와 빵과 커피가 전부였다. 이런 곳은 처음이다. 하지만 아침 햇볕은 화사하였고,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이제 우리는 노이슈반스타인 성을 간다. 디즈니랜드의 ‘잠자는 숲 속의 미녀’에 등장하는 그 성 말이다. 차는 낭만가도를 따라 노이슈반스타인 성으로 갔다. 가이드는 이 성의 주인을 루트비히 2세(1864~1886년 재위)라고 하였다. 멀리서 보는 성은 동화처럼 아름다웠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어질어질하였다. 사람들은 성을 무대로 신나게 사진을 찍었다. 나는 출렁이는 다리를 더 걸지 못하고 돌아섰다. 일행이 다 모이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버스는 독일을 뒤로 하고 스위스를 향해 달렸다. 나는 머릿속에서 주역 64패를 외웠다. 뇌천대장, 뇌택귀매, 뇌화풍, 중뇌진, 뇌풍향, 뇌수해, 뇌산소과, 뇌지진 ……

차창 너머로 세차게 흐르는 급류가 라인 강의 상류란다. 라인 강 이편은 독일이고, 저편이 오스트리아란다. 냇물을 사이에 두고 나라가 달랐다. 우리는 터널을 지나 스위스를 향해 마구 달렸다. 새 가이드를 만난 곳은 쥐리히 식당에서였다. 친절이 몸에 벤 안내원이었다. 쥐리히 외곽으로 다시 10킬로를 달렸다. 마침내 우리는 숙소에 도착했다.

여장을 풀고 저녁 산책에 나섰다. 지하도로를 건너 Icoop에 갔다. 8시 30분이라 방금 전 문을 닫았단다. 스위스의 길거리는 깨끗하였다. 술집에서 빛이 새어 나왔다. 나도 이 밤의 낭만을 즐기고 싶었다.

8월 22일 (목)

스위스의 조식은 빈곤하였다. 과일조차 없었다. 요구르트와 빵으로 아침을 때웠다. 간밤에 친우 장석이 합류하였다. 장석은 공항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택시비로 무려 20만 원을 지급했다. 대중교통이 없었다.

맨 처음 간 곳은 취리히 역사(驛舍)였다. 이곳에서 1917년 레닌은 밀봉 열차를 탔다. 러시아혁명사에서 뺄 수 없는 무협지다. 역 광장은 높고 넓었다. 레닌은 젊은 시절 나의 영혼을 빼앗은 분이다. 어두운 죽음의 시대, 내가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밤을 새워 레닌을 번역했다. 『국가와 혁명』을 번역하면서 혁명의 전략을 알았고, 『좌익소아병』을 번역하면서 혁명의 전술을 알았다. 1980년 가을과 겨울의 일이었다.

다시 시내를 걸었다. 페스탈로찌 동상이 서 있었다. 공원으로 올라갔다. 린덴호프 공원에서 내려다보니 강물이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강 건너 저곳이 취리히 공대란다. 아인슈타인이 다닌 공대를 나는 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사진을 많이도 찍었다.

공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골목길은 아테네의 골목길과 유사하였다. 파르테논 신전을 오르내리는 골목길 말이다. 강물은 맑았다. 강물 위 다리에 서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달리 없었다. 스위스는 나에게 산골이었는데, 그 산골에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 참 신기하였다. 언덕 위의 마을이 나왔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과 흡사하였다. 안내원은 우리를 의미심장한 곳으로 데려갔다. 언덕을 넘으니 레닌 하우스가 나왔다. 1917년 러시아혁명 속으로 들어가기 전, 이곳이 레닌이 은거하던 집이었다. 안내원은 우리를 쾰빙글리의 교회로 데려갔다. 벳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다. 약국을 들렀다. 발가락 흉터를 감싸줄 밴드를 샀다.

버스는 루체른으로 갔다. <슬픈 사자상>에 갔다. 마크 트윈은 이 사자상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자라고 했단다. 루이 16세의 왕위를 지키려다 죽은 스위스 용병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곳이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념할 가치가 있는 죽음이 아닌 듯싶었다. 소크라테스가 이곳에 왔다면, 그들의 행동은 용맹의 정의와는 거리가 먼 아첨이었다고 질타할 것 같았다.

우리는 한국식당, 실라에 갔다. 오늘의 술은 장석이 사기로 했다. 소주와 와인이 나왔다. 사람들은 이 좋은 술자리를 즐겨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 카펠교에 갔다. 한강보다는 작지만 세느강보다는 큰 강이었다. 그 강의 이쪽과 저쪽을 목조 다리가 연결하고 있었다. 목조 다리가 자못 정겨웠다. 우리의 사진작가는 난간에 사진기를 얹어 놓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상(飛上)하는 물새였다.

차는 지리산 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버스는 굽이굽이 뱀주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스위스란다. 이곳의 들엔 논이 없었다. 온통 초지였다. 풀을

뜯는 양과 소만 보였다. 우리는 인터바켄 제(Interbaken See)를 통과하고 있었다. 멀리서 폭포가 떨어지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주역 64패를 외웠다. 풍천대축, 풍택종부, 풍화가인, 풍뇌항, 중풍예, 풍수환, 풍산점, 풍지관 ……

버스는 그라인델 반트(Graindel Wand)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융프라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산속 마을, 지리산으로 치면 의신 마을과 같은 곳이었다. 안내원은 우리가 그린델 발트(Grindel Wald)에서 묵을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숙소에서 조금 걸어 내려와 식사를 하였다. 채소와 감자가 나왔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 스위스의 물가가 살인적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나는 전혀 몰랐다.

모두들 알프스의 풍취에 젖어 산책에 나섰다. 나는 그냥 방으로 귀가했다. 나의 방을 찾은 이는 친우 장석이었다. 장석은 독일에서 구입한 고급 와인을 내놓았다. 조금 있으니 벗들이 왔다.

8월 23일 (금)

일찍 깨었다. 새벽 4시였을까? 시간도 모른 채 산장의 밤을 헤매기로 했다. 굳게 닫힌 문, 어둠을 열고 나섰다. 밤하늘엔 반달이 떠 있었다. 저 멀리 어린 시절의 북두칠성이 반짝이고 있었다. 길을 따라 올라갔다. 마치 지리산 의신 마을을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겁이 나기도 했다. 한참 올라가다가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보니 산은, 아이거(Eiger)는 괴물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깊은 밤이었다. 융프라우는 나를 제압했다. 돌아왔으나 여관 문은 굳게 닫혀 있어 열리지 않았다. 나는 인근을 더 헤매기로 했다. 골목길을 따라 올라갔다. 담배 피우러 나온 동료 덕택에 겨우 여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6시 40분에 조식을 하였다. 빵과 커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디피는 빈곤의 지표였다.

융프라우에 올라가는 날이다. 열차를 바꿔 탄다. 걸어 그린델발트 역까지 갔다. 톱니로 끌어올리는 알프스의 지그재그 열차, 학창 시절 들은 이야기다. 열차에 올라탔다. 깔끔하였다. 그 높은 언덕에도 집들이 있었고, 소들이 풀을 뜯었다. 한가롭다기 보다 조금은 외로웠다. 유배 온 소들. 풍광은 온통 낯설었다. 3000 미터 고지가 온통 침엽수림과 초원과 빙판이었다. 너무 낯설어 글이 되지 않았다. 그냥 펜으로 스케치했다. 차는 중도에 멈추었다. 클라이데 샤페이였다. 다시 차는 터널 속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갔다. 1896년 그들은 이 굴을 뚫기 시작했다. 그리고 1912년 완공했다. 우리가 외세에 시달리던 때, 그들은 산세에 도전하고 있었다.

전망대에 도착했다. 가이드는 고산증세를 예고하였다. 역시 어지러웠다. 그런데 아마도 고산증은 아니었을 것이다. 현기증이였다. 앞에 출현한 우뚝 선 거벽 뒤희를 나는 응시하길 포기하였다. 천 길 아래가 어지러웠다. 사람들은 마냥 즐거이 사진을 찍었다.

실내로 그냥 들어와 버렸다. 실내 스팀에 몸을 지졌다. 사람들은 빙실 속으로 들어갔으나 나는 돌아섰다. 차는 내려갔다. 한국인들이 더러 눈에 띄었다. 저 앞에서 폭포가 나타났다. 무서운 기색도 없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세 개의 폭포였다.

인터라켄(Interlaken)은 두 호수 사이의 도시이다. 한식당에서 꼬리곰탕을 먹었다. 식당에서 정류장까지 시내를 걸어 돌아왔다. 정류장 옆 강물은 유속이 거셌다. 석회수 물이었다. 시청사 앞엔 넓은 잔디 공원이 보였다. 바다처럼 넓은 호수, 그래서 인터라켄이었다. 차는 열심히 제네바를 향해 달렸다. 머리속으로 주역 64괘를 외었다. 수천수, 수택절, 수화기제, 수뇌둔, 수풍정, 중수감, 수산건, 수지비 ……

8월 24일(토)

제네바 왕립 묘지에 갔다. 칼뱅의 무덤에서 임창노의 강연을 들었다. 창노는 대학 1학년 때 만난 벗이다. 그 때 불교에 심취한 창노와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지금은 유럽 여행사 Euroscope의 대표이다. 창노에 의하면 루터와 칼뱅, 종교개혁가들은 16세기의 유럽을 근대로 이끈 혁명가들이었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몽매를 깨고 인간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운동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오는 길에 아르헨티나 시인의 무덤을 발견하였다. 지구 반대편의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던 시인의 묘가 이곳에 있다니! 우리는 무덤에 꽂힌 시집을 풀 속에서 찾아냈다.

공원으로 옮겼다. 파렐과 칼뱅, 벤처와 녹스, 제네바를 이끈 혁명적 지도자들의 입상을 벽에 박아놓은 대형 부조가 나왔다. 어둠 뒤 빛이 온다.(Post 0000 Bras Lux.) 광주엔 왜 이런 기념물이 없을까 안타까웠다.

우리는 중세의 골목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네바는 현대와 중세가 이음새 없이 이어져갔다. 생 삐에르 교회를 보았고, 종교개혁 박물관에 들렀다. 내가 칼뱅이나 된 양, 얼굴을 넣고, 사진을 찍었다. 제네바의 시민들은 햇볕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광장 한 켠 누드의 처녀 동상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 처녀 동상 뒤 벤취에서 쉬었다. 내려오는 길에 토마토와 무화과를 샀다. 중세를 빠져나와 다시 현대로 들어갔다. 가이드는 우리를 레닌의 얼굴이 부조로 새겨진 성문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레닌의 추억을 고이 간직해준 제네바가 내심 고마웠다. 식사는 고급이었다. 수프에 살라드에 감자에 돼지고기 요리에 커피까지 나왔다. 식당의 벽에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하여 전 세계 유명한 예술가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이제 차는 바젤로 간다. 버스에서 와인을 들렀다. 판이 벌어진 것이다. 어제 산 햄을 안주 삼아 씹었다.

바젤 대학은 24세의 니체가 강의를 한 대학이다. 우선 시청 광장에 들렀다. 복지(Wohl)와 자유(Freiheit)와 단결(Einskeit)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단어만 보아도

문장의 뜻이 간취되었다. 복지와 자유를 위해 단결하자는 뜻이리라.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갔는데, 난데없는 야외극장이 나왔다.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었다. 헤아려 보니 1000석이 넘었다. 부러웠다. 걸었더니 강물이 나왔다. 라인 강이 흐르고 있었다. 남과 여, 노와 소를 구분하지 않고 이곳 강가에 나온 이들은 모두 한가해보였다. 멀리 강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오늘은 스위스의 마지막 날이다. 길가에서 식사를 하였다. 샐러드와 스파게티와 크림이 나왔다. 물도 나왔다. 스위스 여행을 이끌어준 이는 김용우 씨였다. 성악을 전공하려 이탈리아에 온 이,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해박한 견식을 갖춘 이, 그의 언어 감각은 두드러져 보였다. 이곳에서 김용우 씨와 이별하였다.

물루즈(mulhouse)에 갔다. 물랑루즈에서 ‘랑’을 빼면 물루즈이다. 이곳은 프랑스이다. 우리는 오늘 저녁 전체 모임을 갖기로 했다. 다행히 여관엔 모두가 모일 공간이 예비되어 있었다. 나는 땀을 씻고 바로 향연의 자리에 갔다. 아주 깔끔한 백포도주 리즐링이 나왔다. 창노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동구권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연구하려 베를린에 왔는데, 동독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사회주의 경제 이론이 증발해 버리더라는 것이다. 학교의 수위를 한 적도 있었단다.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나?”는 질문을 자신에게 물었단다. 이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직접 답사하고, 걸어 다니면서 그동안 트레킹 여행 코스를 100여개나 개발했단다. 40년 전에 만난 벗들이 이렇게 만나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거, 팬찮지 않은가? 일행들이 보기에도 좋았나 보다. 그 사이에도 동네 축제에 갔다 온 이가 있었다. 그곳의 백중 날 축제였다.

8월 25일 (일)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였다. 벗들과 함께 인근 공원을 걸었다. 공원 옆 1층 건물에 ‘Bibliography Municipale’가 쓰여 있었다. 뭐냐? 우리는 온갖 추측의 힘을 발휘하여 ‘마을문고’ 쪽으로 합의하였다. 맞나?

가는 곳은 스트라스부르그(Strassbourg)이다. 아름다운 곳이란다. 베를린에서 우리의 여행을 돕기 위해 달려온 이는 오정근 씨이다. 오씨는 현재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대학교수였다. 어제 우리는 프라이부르그(Freiburg) 여정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스트라스부르그에 몰입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꽃이 핀 다리 위를 걸었다. 벌들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이곳의 노트르담 성당의 높이는 140미터다. 하늘을 찌렀다.

점심이 달라졌다. 닭고기와 마카로니 국수가 나왔다. 닭다리를 뜯을 만 하게 맛이 있었다. 와인도 곁들였다. 식당을 나오는데 장석이 제의했다. “광우, 창노와 와인 한 잔 더하

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일 것이다. 내가 먼저 한 잔 하자고 청하지는 못하나 먼저 제의를 해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런데 이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창노와 장석은 둘만이 와인을 마셨다. 나를 배반한 것이다.

슈트라스부르크 노트르담 성당 앞에 앉아 있는데, 뒤늦게 장석과 창노가 왔다. 장석의 룩색의 뒤가 열려져 있었다.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다. 장석은 가난한 청년들에게 도네이션한 것으로 생각하자고 아쉬움을 털어내었다. 배반에 대한 복수였을까? 스트라스부르크의 길바닥은 걷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제 가는 곳은 트리어(Trier)다. 마르크스의 생가가 있는 곳,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14년에 개척한 곳이다. 2000년 전, 라인 강 이쪽은 문명의 세계였고 라인 강 저쪽은 야만의 세계였다. 그 경계의 한 점이 트리어였다.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라인 강 너머엔 역사라곤 도무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지하실로 인도되었다. 천정은 높았다. ‘세계테마기행’에서나 봄직한 그런 지하식당, 약간 어두우면서도 분위기는 밝은 식당, 맥주잔을 부딪히며 남녀 노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식당 말이다. 새삼 창노의 배려가 느껴졌다. 역시 음식도 달랐다. 수프도 좋았고, 돼지 훈제는 일품이었다. 비어도 한 잔 씩 돌렸다. 내일이면 창노가 떠난다. 밤 12시까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석은 이번 여행의 경비를 캐물었으나, 창노는 웃기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8월 26일(월)

트리어의 아침이다. 독일은 식당부터 달랐다. 지금까지 없던 과일과 요구르트와 요리가 나왔다. 모젤 강의 강바람을 쏘였다. 성벽을 지나 마르크스의 생가에 도착했다. 나는 얼른 기념품을 샀다. 맑스의 사진을 담은 액자와 맑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기념 화폐를 샀다. 건너편 방에서 창노가 회원들에게 맑스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었다. 정원엔 맑스의 동상이 있었다. 우리는 기념 촬영을 하였다. 생가를 나와 성벽 근처, 맑스의 대형 동상이 서 있는 곳을 찾았다. 이곳에서도 기념 촬영을 찍었다. 우리가 자주 시간을 지체하여 폴란드 출신 운전사가 불만이 많았나 보다. 가이더를 따라 이렇게 외쳤다. “과벨, 찌뚜에!”

우리는 로렐라이를 향해 가고 있었다. 중3때 만난 여인, 로렐라이 말이다. “옛날부터 전해 오는 쓸쓸한 이 말이 가슴속에 그림계도 끝없이 떠오른다.”를 부르며 가고 있었다. 버스는 라인강을 향해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라인강을 배로 건넜다. 강변 식당에 들어가니 실내는 아늑하였다. 나는 다운이와 함께

자리를 하였다. 다운이는 아빠를 닮아 제법 술을 즐기는 것이었다. 젊은이가 술을 좋아하여 내 마음에 꼭 들었다. 이제 창노와 헤어질 때가 왔다. 비가 한 점 두 점 푹푹 떨어졌다. 차는 강변을 따라 달렸다. 강 건너엔 포도밭이 수직으로 서 있었고, 저어기 로렐라이 상(像)이 강물 속에 앉아 있었다. 로렐라이의 슬픈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버스는 어느새 와이너리에 당도했다.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와이너리란다. 다시 한번 단절된 우리 역사의 아픔을 상기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숭에서 와인 4병을 사 버렸다. 유리 병마개도 많이 얻었다. 버스는 와이너리에서 내려와 우리를 라인 강변에 풀어놓았다. 골목길을 따라 올라갔다. 가이드는 자유 시간을 선포했고 나는 근처 와인 가게에 들어갔다.

약속된 시간, 음식점에 갔다. 음악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었다. 남성 가수가 저음의 팝송을 불렀다. 조금 있으니 여성 가수가 등장하였다. 깜찍한 눈매, 오뚝한 코, 보조개가 예쁜, 작은 얼굴의 여가수였다. 로렐라이를 독일어로 부르는데 정말이지 함께 따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다. 무대 앞으로 뛰쳐나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었다. 여가수는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다. 음악은 짧은 시간에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다. 숙소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208호로 오라는 전갈이었다. 갔더니 젊은이들이라면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생동감이 넘쳤다. 라면 몇 개가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다니 ……

8월 27일(화)

하이델베르그를 향해 달렸다. 강은 네케 강이었다. ‘철학자의 산책로’로 유명한 마을이다. 이곳에서 헤겔이 강의를 하였고, 하이데거가 있었다. 하이델베르그는 중세에 의약으로 유명한 성이었다. 와인을 담은 거대한 오크통이 우리를 압도하였다.

가이드는 자유 시간을 선포하였고 나는 장석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하이델베르그에도 한국인의 흔적이 있었다. ‘알바생 구함’이 한글로 쓰여 있었다.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 유쾌하게 환담을 하였다. 누군가 소주를 꺼내 마셨나 보다. 가이드 오정근 씨는 독일인 주인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로텐부르크(Rotenburg)이다. 중세의 공기를 간직한 성이었다. 담벼락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따라갔다. 성을 보수하는데 일본인들이 지원을 많이 하였나 보다. 그들의 이름이 담벼락에 기입되어 있었다. 다시 가이드는 자유 시간을 선포하였고, 나는 미니 차를 타기로 했다. 벳들이 합류하였다.

이런 곳이라면 2박 3일 묵어야 한다. 차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았다. 차를 모는 운전사는 노년이었는 데 서툰 영어로도 대화를 잘하였다. 일행들이 나더러 내리란다. 그래서 성

벽 입구에서 내렸다. 아무도 없는 공간, 혼자 어슬렁거렸다. 숨에 갔더니 욕심나는 스님의 입상이 있었다. 그런데 호주머니가 비어 있었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호주머니는 텅텅 비었다. 길을 따라 오르기로 했다. 가다 보니 저기에서 일행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허겁지겁 빵을 집어 묵었다. 버스를 탔다. 그런데 버스가 조금 이동하더니 그냥 성 밖에 내리는 것이다. 웬일이야? 중세의 성 밖에 우리는 숙소를 잡은 것이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 안 벤치는 황홀하였다. 벤치 뒤 성벽은 훌륭한 스튜디오가 되었다. 번갈아 사진을 찍었다. 유럽의 고도(故都)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다.

8월 28일(수)

버스는 프랑크푸르트로 갔다. 피테 하우스에 갔다. 피테 하우스 앞에서 가이드는 나에게 한 마디 하라고 하였다. 이런 때, 이런 곳에서는 “침묵이 금이다.”

걸어 걸어서 시청 광장에 갔다. 광장 한 가운데엔 ‘분서(焚書) 동판’이 있었다. 나찌가 이곳에서 책을 불태운 것이다. 나는 더듬더듬 분서의 저자들을 독일어로 읽어 주었다. 칼 마르크스, 고리끼, 콜론타이 ……

광장 한 편으로 결혼 축하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아마도 시청에 결혼식을 신고하고, 지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인 것 같았다. 신부는 인도네시아 여성이었다. 나이가 욕심 가까이 먹어 보였다. 헐. 우리는 마침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출국 절차가 까다로워 탑승 시간을 놓칠 것만 같았다. 공항 복도를 마구 달렸다. 우리는 54번 입구에 섰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조그만 기다리세요.”라는 안내문이 분명 있었다. 루프트탄자도 우리를 기만할 수 있음을 알았다. 비행기는 56번 입구에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좌석은 비즈니스 석이었다. 이런 경우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하나? 자리가 넓어 좋았다. 『헤겔의 미학 강의』를 읽으면서 10시간의 무료함을 달랬다. 북경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다. 아슬아슬하였다.

2019년 9월 10일 황광우 씀

의병강연회(2019.10~11월, 1차-4차)

‘동고송’은 2019년 상반기에 의향 광주의 역사적 뿌리를 연구하였고, 2019년 하반기에 광주정신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들과 시민이 참여하는 의병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주관으로 ‘의향광주의 뿌리를 찾아서-한말호남의병’ 강연회는 1차에서 4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병강연회 1차

일시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저녁 6시 ~ 8시
장소	광주 “오월의 숲”
참여자	교사, 광주시민
주제	<p style="text-align: center;">한말호남의병운동은 의향광주의 역사적 뿌리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말 호남의병에 대한 몇 가지 소회(노성태) - 한말호남의병운동에 대한 몰이해를 바로 잡자(황광우) - 『송사집(松沙集)』을 통해 본 기우만의 의병활동(신봉수) - 역사교과서에 서술되고 있는 한말 호남 의병에 대해(김보름) - 한말 호남의병에 대해 말한다!(박전일)

한말 호남의병에 대한 몇 가지 소회(노성태)

의병에 대해 한말 호남 의병을 상징한 심남일 의병장은, “의병은 아침에 적을 치고 저녁에 조국의 산에 묻히는 것”이라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은, ‘의병’은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군(民軍)’이라고 정의하였다.

한말 의병은 박은식이 그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무장한 의병의 피살자가 10만 명이었고, 무고한 촌민으로 학살당한 자는 곧 독립 이후가 아니고서는 그 통계

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기술할 정도로, 의병에 가담한 숫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일제가 작성한 『조선폭도토벌지』 등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가장 활발히 의병 활동이 이루어지던 1907년부터 1911년까지 불과 5년 동안의 의병 숫자를 약 14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호남 의병들의 역할이 특히 주목된다. 박은식이 일찍이“대체로 각 도의 의병을 말한다면 전라도가 가장 많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1908년에 호남 의병이 일본 군경과의 교전 횟수와 교전 의병 수에서 전국 대비 25%와 24.7%를, 1909년에는 47.1%와 60.0%를 차지하였다. 남한대토벌 작전(南韓大討伐作戰)’은 일본 제국이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대한제국 내 전라남도과 그 외곽지대에서 저항을 했던 항일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 세운 토벌작전이다. 1907년에서 1909년까지 의병의 대(對) 일본군 전투횟수는 무려 약 2천 7백회나 되었고, 참가 의병들 숫자만 해도 약 4만 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항일의병 투쟁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의병전쟁이 이어졌는데 유독 호남 지방만 09년 중반 이후에야 의병들이 들어섰고 이를 위해 일제는 9월~10월 두 달 간 소탕을 시작하고 다시 다른 지역에 병력을 투입한다. 그래도 2달간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다. 이 과정에서 항일 의병장들만도 103명이 희생되었는데, 그중 항일 의병장 전해산 등 23명은 일본군에 체포되어 형장에서 순국했다. 호남 의병이 상당 기간 불이익을 당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해방 후 교과서 집필자들의 다수가 비 호남 출신이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은 의병운동에서 접하는 호남의 압도적 비중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의병 연구자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말호남의병운동에 대한 몰이해를 바로 잡자(황광우)

나는 고교 시절 박정희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교도소를 들락거리기도 하였다. 오랫동안 감옥과 수배의 꼬리표를 달며 살았던 내가 정작 ‘의향 광주’를 설명할 수 없었다.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자랐으며. 광주의 아이들을 꽤나 많이 가르쳐 온 내가 정녕 ‘의향 광주’를 설명할 수 없었다. 1907년 호남창의 회맹소를 창건하고 성재 기삼연은 한말 호남 의병의 맹주가 되었다. 10월 30일, 장성의 수연산에선 수백 여 명의 의병들이 깃발을 들고 결의를 하였다. “빼앗긴 나라를 찾자.”

기삼연은 발에 부상을 입었다. 걸을 수가 없어 엉금엉금 기었다. 순창에서 체포되었고, 1908년 2월 1일 광주 공원 앞 백사장에서 총살되었다. 광주 사람들은 기삼연의 처형 소식을 듣고 방에 불을 피우지 않고, 함께 울었다고 한다.

전기 의병의 지도자가 최익현과 유인석이었다면, 후기 의병의 지도자는 기삼연과 김준, 전해산과 양진여, 심남일과 안규홍, 모두 호남 의병장들이었다. 이들의 이름이 빠진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한다.

《송사집(松沙集)》을 통해 본 기우만의 의병활동(신봉수)

호남지역 한말의병은 기정진의 문인이자 손자인 기우만에 의해 시작된 장성의병이었다. 기우만은 기정진의 뒤를 이어 노사학과를 이끄는 영수로서 “奇山林”으로 불린 대표적 유생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위정척사사상이었다. 호남지역의 의병은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이 일어나자마자 거의한 것은 아니었다. 동학농민운동의 생채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의병을 일으키라는 국왕의 명령이 전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국모 시해에 대한 복수와 단발령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상소운동을 전개하는데 머물렀다. 기우만은 아관파천에 대한 분노와 환궁 요구, 국모 시해, 단발령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우만은“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머리를 깎고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머리를 깎지 않고 망하는 것이 나으며, 사람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머리를 깎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머리를 보존하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한 것처럼 단발령이 의병 봉기의 결정적 이유였던 것이다. 이는 전국적인 흐름이었다. 당시 전기의병의 격문 50건 가운데 단발령 직후 발표된 격문이 37건으로 74%를 차지한다.

기우만의 격문에 호남 여러 고을 유생들이 호응하자, 기우만은 2월 7일 고평순·기삼연·김익중·기재·기우익·김양섭 등과 장성 향교를 도회소, 양사재를 향회소로 삼아 의병을 일으켰다. 200여 명으로 구성된 장성의병은 근왕(勤王)이 목표였다. 따라서 기우만은 의병을‘근왕지사(勤王之師)’라고 칭하였다. 그와 함께 의병을 일으킨 고평순 역시 자신들을‘근왕의병(勤王義兵)’으로 인식하였다.

의병 봉기 계획으로 인해 광주, 영광, 서울로 압송되는 등 부침을 거듭한 기우만은 1909년에 《호남의사열전》을 집필하였다. 일제가 의병을 ‘폭도’라 지목하고, 의병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사람들이 꺼려 의병에 대한 기록이 사라질까 우려하였다.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기삼연 의병계열에 있는 사람들, 즉 호남창의회맹소에서 활동한 12명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는 의기 및 절개를 입전 준거로 삼았다. 의기

를 드러낸 언행, 항일 정신을 실천하여 조선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모습 등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반면 의병들의 열전이면서도 전투와 관련한 내용을 되도록 서술을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했다. 또한 해당 인물과 자신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서술 방식을 썼다. 자신이 서술하고 있는 의병들의 행적, 의기, 사건 등이 ‘실재’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열전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을 구사했던 것이다. 《호남의사열전》은 한말 의병들에 대한 최초의 열전으로 의병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말 호남 의병은 동학농민운동의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더 늦게 일어났다. 하지만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 아관파천일 일어남으로써 거병하기 시작하였다. 송사 기우만의 거병에는 노사 기정진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위정척사상이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머리를 깎고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머리를 깎지 않고 망하는 것이 나으며, 사람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머리를 깎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머리를 보존하고 죽는 것이 낫다”면서 의병을 일으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멸망보다는 기존 성리학적 질서와 제도를 더 중시하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국왕의 명령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병을 일으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우만의 봉기는 근왕(勤王)을 목표로 반개화, 반침략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는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의병을 일으킨 유인석의 격문이 도달한 이후에 의병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고종의 해산 권고조칙에 의해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해산한 것에서도 킨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기우만의 의병은 자신들이 거병한 역사적 연원을 임진왜란에 찾고 있다. 이는 의병을 일으키자마자 나주로 달려가 김천일의 사당에 제사를 지낸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임진왜란 호남의병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교과서에 서술되고 있는 한말 호남 의병에 대해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보름)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8종이다. 검정 교과서의 특성상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집필 기준을 준수하는 한에서는 출판사별로 교과서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서술 방식이나 표현, 자료 선정 및 제시 방법 등이 다르며, 그 결과 해석이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현행 8종 교과서는 한말의병을 ‘의병 운동’, ‘의병 전쟁’, ‘의병 투쟁’, ‘의병 봉기’, ‘의병 항쟁’으로 표현하였으며, 한 교과서 안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주로 ‘의병운동’이나 ‘의병 투쟁’이라고 표현하다가 정미의병 시기부터는 ‘의병전쟁’이란 용

어를 사용하여 한말 의병의 확산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의병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되지 않는 교과서(교학사, 금성, 비상)도 있다. 역사 용어는 그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기억하느냐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말 의병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역사교육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8종의 교과서에서는 총 33명의 의병장의 서술되어 있다. 비상교육이 최고 28명, 동아출판이 최저 16명으로 출판사별로 소개된 의병장의 차이가 크다. 8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병장은 기우만, 최익현, 임병찬, 유인석, 민종식, 신돌석, 이소응, 이인영, 민공호, 홍범도 10명이다. 그 중에서도 8종의 본문에 모두 기술된 의병장은 최익현, 민종식, 신돌석 3명이다. 본문을 포함하여 사진 등 기타 자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의병장은 최익현이다. 최익현은 8종 교과서에 총 27회 이름이 확인되며(한 자료에 2번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1회로 계산), 유인석과 신돌석은 총 20회, 이인영은 총 18회이다.

가장 많은 의병장이 소개된 지역은 전라도이다. 전라도는 최익현 외에도 기우만, 임병찬, 기삼연, 심남일, 전해산, 안규홍, 고광순 등 총 8명의 의병장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일제에게 거괴로 지목되었던 김태원은 한 종의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았으며, 호남창의회맹소의 기삼연도 본문에 1회(금성출판사), 지도에 1회(비상교육)에 실리는 것으로 그쳤다. 고광순도 본문 서술이나 지도 표기 없이 불원복기만 1회(천재교육) 실렸다. 1908~1909년 가장 활발하게 의병전쟁을 전개했던 지역이 호남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호남지역 의병장에 대한 서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새 역사교과서의 한말호남의병 서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말호남의병의 활약과 의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교과서에는 호남의병을 한말의병전쟁이 스러져가는 단계로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1908년과 1909년 호남의병은 한말의병전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민족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민초들의 거대한 저항이었다. 호남의병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그 활약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로 제시하고, 일제가 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시행해서라도 호남 의병을 초토화시키려고 했는지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호남의병에 대한 학살이 이후 전국적인 의병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기술하면 한말호남의병은 더 이상 지역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사의 거대한 물줄기로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김태원 등 잊혀져버린 의병장을 되살려야 한다. 한말호남의병의 활약에 비해 교과서에 소개된 호남의병장 서술은 너무 미미하다. 시기별, 지역별, 의병 활약(비율)

별로 교과서에 소개할 의병장을 재검토하고 정선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 서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시기별, 지역별 사실을 종합하여 지도를 제작할 때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지도는 매우 직관적인 학습 자료이며, 본문에 분량상 넣지 못한 정보를 추가하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의병 봉기 지역 표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역사적인 중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학습 자료로써 가치가 없다.

넷째, 호남의병전쟁과 ‘남한 대토벌 작전’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학습 모형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의 한말의병과 관련한 탐구활동이나 읽기자료는 의병이 봉기한 배경을 알기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을사의병 당시 최익현의 격문을 제시하고 배경이 되는 사상이나 사건을 묻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습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고 그 의의를 발견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한말호남의병은 그 뜨거운 혈전과 안타까운 결말만큼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주제이다. 이를 잘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 모형이 개발되길 바란다.

한말 호남의병에 대해 말한다! (박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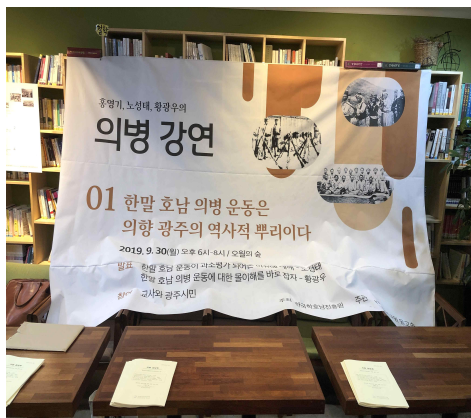
의병운동은 전과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학살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인 전력의 비대칭 상황 속에서도 비장한 죽음의 향전을 감행했던 정신에서,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더라도 자유민이 되겠다는’ 자유, 그리고 의를 향한 신념 자체에 의병운동의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화 <봉오동전투>를 보면 황해철(유해진 분)이 휘두르는 항일대도가 나옵니다. 그 대도에는 ‘태산홍모(泰山鴻毛)’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지요.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 털 하나보다 더 가볍기도 한 것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광순 의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의병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이전 날 거 의하는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 혹자가 가로되 병사가 싸움터에 나아가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였다. 죽음의 땅에 나아간 뒤에 사는 것이니 오직 인의(仁義)를 행동하면 이(利)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이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의병정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승패이둔불고(勝敗利鈍不顧)’, 즉 이기고 지고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지 않는다. 박은식이 의병을 ‘민족의 정수’라 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호남의병은 그 활약상에 비해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의병활동 주요 거점이 호남이었지만 기념관 등 인프라는 태부족하고, 이는 춘천, 의령, 안동, 제천 등 타 지자체의 활발한 의병사업과 대조적입니다. 공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교과서에는 3페이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고, 국정교과서에서는 반 페이지 정도를 할애하려고 했습니다. 광주에 조성된 역사관련 공간, 가령 아시아문화전당, 5·18기록관, 5·18기념재단 등에서도 호남의병 등 의향 광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뒤늦게 2015년 '한말 호남의병 선양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 2017년 (사)한말 호남의병 기념사업회가 출범했고, 최근에 '광주시, 호남의병 기념관 건립 추진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지난 6월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병강연회 2차

일시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저녁 6시 ~ 8시
장소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참여자	교사, 광주시민
주제	한말 호남의병의 역사적 의의(홍영기)

한말 호남의병의 역사적 의의(홍영기)

전라도에서는 1895년 겨울부터 의병을 일으킬 준비에 들어갔다. 일본이 을미사변, 즉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살해한데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격분한 전라도 사람들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나 약 석달만에 해산하였다. 당시 의병봉기의 중심지는 장성과 나주였다.

일제의 국권침탈이 갈수록 심화되자 의병봉기가 재연(再燃)되었다. 이를테면 1904년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마구 내정을 간섭하였다. 1905년 11월에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어 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함으로써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국권을 수호하려는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음은 물론이다.

호남의 뜻있는 인사들도 다시 의병봉기를 모색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기삼연, 기우만, 고헌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을사조약이전부터 의병을 도모하느라 밤잠을 설쳤지만, 그들의 의지와는 달리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1896년 초를 전후하여 의병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최익현은 호남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가 보낸 ‘포고팔도사민(布告八道士民)’이라는 글은 호남의 유생들의 의리정신을 크게 고무시켰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을사오적’의 처단 등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족적 자각과 국가의 보존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전라도 전체가 의병의 발자국과 함성에 메아리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1907년 후반부터 전라남북도에도 의병의 불길이 거세게 일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

기저기에서 의병봉기가 줄을 이었는데, 특히 기삼연과 고광순의 활동이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다.

기삼연이 이끄는 ‘호남창의회맹소’는 반일투쟁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들이 일본인 군경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는 점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전남 창평 출신의 고광순 의병장 역시 호남의병의 불씨를 끈질기게 이어간 인물이었다. 고광순은 의병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1906년 6월 최익현이 태인에서 봉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으며, 11월에는 백낙구 등과 함께 구례 중대사에 모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도모하였다. 1907년 2월 고광순(高光洵, 1848~1907)은 남원의 양한규와 연합하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고, 음력 12월 중순에 의진을 결성하였다.

지리산 피아골을 장기항전의 근거지로 설정한 최초의 의병장, 고광순은 더 이상 유약한 선비가 아니라 강건한 빨치산 의병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리산이 의병의 소굴로 변모하자, 일제가 가만둘 리 없었다. 1907년 10월, 이들은 일본 군경의 기습을 받아 의병장 고광순을 비롯하여 약 30명의 의병이 장렬히 순절하고 말았다.

이후 크고 작은 의병부대가 전라도 각지에서 일어나 1908년 이후에 전라도는 의병항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일제는 호남의병을 소탕하기 위해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1909.9-10월)이라는 ‘의병학살작전’을 자행하였다. 호적조사까지 겸해 이루어지는 호남의병대학살사건은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군사작전이었다. 일제는 이미 주둔중인 군대와 경찰을 제외하고도 2개 연대를 증파하였으며, 도서의병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해군 11정대와 증기선, 소형발동선 및 경비선 수십척을 동원하여 무차별한 군사작전을 펼쳤다. 한말의 호남의병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한말 호남의병의 정신적 근원은 멀리는 임진왜란 당시의 호남의병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호남의병을 주도한 인물들의 대부분이 왜란에 참여한 의병의 후손이란 점에서 입증된다.

둘째, 1908~9년 사이에 전개된 호남의병의 강력한 반일투쟁은 일제의 식민화정책을 지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국내항일운동기지의 기초를 닦는데 공헌하였다. 호남의병은 장기항전의 기반을 지리산과 같은 산악지대 등에 구축하였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민족해방투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의병강연회 3차

일시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저녁 6시 ~ 8시
장소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참여자	교사, 광주시민
주제	한말호남의병의 실제 찾기 - 녹천 고광순의 의병 활동(박전일)

	- 나는 왜 이제야 아는가? (황광우) 의병장 안규홍의 『담산실기』 연구 -머슴출신 평민 의병장 안규홍 (노성태) 의병장 양진여 연구 한말 최대 의병 항쟁지, 어등산 의병 정신 기리는 메모리얼 파크, 어등산에 건립해야
--	--

녹천 고허순의 의병 활동(박전일)

녹천(鹿川) 고허순(1848~1907)은 현종 14년 2월 초이렛날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서백(瑞伯), 본관은 장흥이니 바로 호남의 명문 장흥 고씨의 후예이다. 차츰 장성하자 상월정(上月亭)에 올라가 10년 동안 문을 닫고 마음을 다해 육경(六經)을 전공하여 은미한 사연(辭緣)과 심오한 뜻을 조목조목 분석함으로써 경의(經義)에 매우 밝아 격물·치지·성의·정심(格物·致知·誠意·正心)의 공부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도를 항상 스스로 구명(講明)하였다. 고허순은 여느 유생들처럼 경학(성리학) 공부에 전념했으며, 군자의 삶을 실천하는 데 뜻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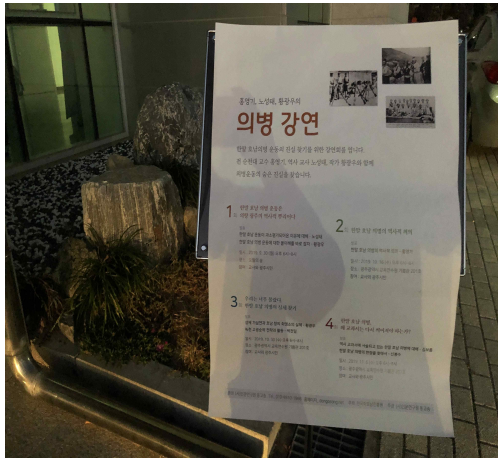
때는 갑오년(1894). 호남의 온 고을에서 흰옷 입은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섰다. 당시 고허순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당시 호남에서는 1896년 2월, “호남의 선비들이 영수(領袖)로 모시고 태산북두(泰山北斗)처럼 바라보았던”(「통고열읍문(通告列邑文)」) 기우만과 ‘백마장군’ 기삼연 등 노사 기정진의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장성에서 거의(擧義)했다. 창평에서 고허순이, 나주에서도 이학상과 정석진 등 향리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다. 이어 장성의병과 나주의병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기우만을 맹주로, 고허순을 좌도의병장으로 하여 호남대의소(湖南大義所)가 결성되었다.

고광순의 현실 인식 또한 철저히 척사위정에 기반하고 있었다. 고허순의 나이 57세 때인 1905년. 을사늑약(1905.11.17)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호남에서도 의병의 불길이 타올랐다. 먼저 불씨를 지핀 것은 면암 최익현과 그 문인들이었다.

고광순은 60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10년 넘게 고군분투하였다. 일제가 그를 ‘고충신(高忠臣)’, ‘호남의병의 선구자’라고 지칭할 정도였고, 1906~1907년 사이에 활동한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최익현, 기삼연과 함께 그를 꼽았을 정도다. 그러나 고허순이 구례, 남원, 창평, 능주, 동복 등지에서 분투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분노와 의기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었다. 보다 ‘전략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효과적인 투쟁 방략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을 찾았다. “이해 5월에 능주에서 왜

적을 습격하였다가 이기지 못했고 8월 초순에 동북에 들어가다가 왜병의 차단으로 후퇴하였다. 이리하여 구례 연곡을 근거지로 결정할 계획을 하였으니 아마 십년간 경험이 축적되었기에 이제야 약간 전쟁하는데 두서가 생겼다.”(황현, 「약전」) 거지로서 지리산을 주목했다.

고광순, 그는 “백발의 늙은 서생으로 무사(武事)가 무엇인지 모르고 군사도 역시 오합지졸인데, 다만 충의를 신뢰하고 창을 베개 삼아 10년 동안 노숙(露宿)하기를 하루와 같이 여겼으며,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데도 지주(砥柱)처럼 우뚝 서서 그 본성을 온전히 가졌으니, 만고에 죽지 않는”(「행장」) 의혼(義魂)으로 남아 있다.



의병강연회 4차

일시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저녁 6시 - 8시
장소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참여자	교사, 광주시민
주제	<p>역사교과서에 서술되고 있는 한말 호남의병에 대해 (김보름) 한말호남의병의 현장을 찾아서(신봉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가 가장 두려워 한 김태원·김을 형제 의병장 - 바다와 산을 누비는 꿈을 꾀 전해산 의병장 - 전남 제일의 의병장을 꿈꾼 심남일 의병장 - 호남별판을 지킨 오성술 의병장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김보름)

8종의 교과서에서는 총 33명의 의병장의 서술되어 있다. 비상교육이 최고 28명, 동아출판이 최저 16명으로 출판사별로 소개된 의병장의 차이가 크다. 8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병장은 기우만, 최익현, 임병찬, 유인석, 민종식, 신돌석, 이소응, 이인영, 민공호, 홍범도 10명이다. 그 중에서도 8종의 본문에 모두 기술된 의병장은 최익현, 민종식, 신돌석 3명이다. 본문을 포함하여 사진 등 기타 자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의병장은 최익현이다. 최익현은 8종 교과서의 총 27가지 자료(본문 8종, 영정 2종, 사진 3종, 탐구활동 3종(4회), 읽기자료 2종, 지도 8종)에서 이름이 확인되며, 유인석과 신돌석은 총 20회, 이인영은 총 18회 서술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의병장이 소개된 지역은 전라도이다. 전라도는 최익현 외에도 기우만, 임병찬, 기삼연, 심남일, 전해산, 안규홍, 고광순 등 총 8명의 의병장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일제에게 거괴로 지목되었던 김태원은 한 종의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았다. 호남창의회맹소의 기삼연도 본문에 1회(금성출판사), 지도에 1회(비상교육)에 실리는 것으로 그쳤다. 고광순도 본문 서술이나 지도 표기 없이 불원복기만 1회(천재교육) 실렸다. 1908~1909년 가장 활발하게 의병전쟁을 전개했던 지역이 호남

이었다는 사실을 되짚어볼 때 호남 의병장에 대한 서술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도 다음으로 많은 의병장이 서술된 곳은 경상도로 7명이며, 강원도는 5명, 충청도와 함경도는 각각 4명의 의병장이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역별 의병장 분류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과서별로 의병장의 봉기 지역이 지도에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있기 있다.

현재 사용 중인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봄으로써 한말 의병전쟁에서 호남의병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새 역사교과서의 한말 호남 의병 서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말 호남 의병의 활약과 의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교과서에는 호남의병을 한말 의병전쟁이 스러져가는 단계로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1908년과 1909년 호남의병은 한말 의병전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민족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민들의 거대한 저항이었다. 따라서 호남의병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그 활약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로 제시하고, 일제가 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시행해서라도 호남 의병을 초토화시키려고 했는지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호남의병에 대한 학살이 이후 전국적인 의병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둘째, 김태원 등 잊혀져버린 의병장을 되살려야 한다. 한말 호남 의병의 활약에 비해 교과서에 소개된 호남의병장 서술은 너무 미미하다. 시기별, 지역별, 활약별로 교과서에 소개할 의병장을 재검토하고 정선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 서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호남의병전쟁과 ‘남한 대토벌 작전’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학습 모형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말 호남 의병은 1909년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10년 후 3·1운동, 그리고 또 10년 후 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으며, 해방 후에는 민주주의를 이끄는 투쟁으로 그 정신이 이어져오고 있다. 호남 의병의 역사를 알고 인식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미래 세대에게 전수할 공동체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역사교과서가 한말 호남 의병에 대한 올바른 서술을 통해, 역사교육의 길잡이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한말 호남 의병의 현장을 찾아서(신봉수)

동학농민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호남에서도 양반 유생 중심의 장성의병과 아전 중심의 나주의병이 일어났다. 1905년 11월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요해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상소 활동, 죽음으로써 항거한 자결, 언론에 의한 규탄, 밀사 파견을 통한 국권 회복 운동, 을사오적 암살 활동,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등이 있었으나 가장 격렬하고 적극적인 투쟁은 의병 항쟁이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호남 지역 의병 운동의 도화선은 1906년 6월 최익현의 봉기였다. 최익현과 임병찬은 4월 13일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거병하여 태인, 정읍, 곡성 등지를 거쳐 순창에서 거병하였다. 4월 15일 정읍을 점령하여 무기고를 접수하였다. 고광순은 창평 출신으로, 최익현과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키자 이에 호응하여 창평에서 봉기했다.

성재 기삼연(奇參衍, 1851~1908)은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에서 출생하였다. 기삼연은 1895년 기우만이 나주에서 봉기했을 때 참모로 활약하였다. 기삼연 부대는 1908년 1월에도 각지의 순사 분파소, 세무서, 일진 회원, 우편 취급소 등을 공격하였다. 그러던 중 기삼연은 담양의 추월산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순창 북홍산에 들어갔다가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되어(1908. 2. 2, 설날) 광주 헌병대에 수감되었다가 이튿날 광주천 백사장에서 재판 없이 사살되었다.

같은 시기에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한 김태원 부대는 나주 부근을 본거지로 하여 함평, 장성, 영광, 담양 등 각지에서 투쟁을 벌였다. 김태원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담양 무동촌 전투이다. 1908년 2월 2일 담양 무동촌에서 요시다가 이끄는 광주수비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오히려 일본군 지휘관을 살해하였다.

김율은 문필에 능하여 박사라고 칭하였다. 기삼연, 형 김태원 등과 호응하여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였으며, 그 규모가 한창일 때는 5백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형제의 의병 활동은 1908년 3월 김율이 체포되고 그해 4월에 김태원이 전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안규홍(1879~1911)은 보성읍 우산리 택촌 출생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어려서부터 머슴살이를 하며 편모를 봉양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안담살이(머슴살이)라 불러, 뒤에 호를 담산이라 했다. 안규홍 부대는 대원사를 중심으로 보성 일대에 근거지를 두었다. 그리고 능주,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남부 지역을 무대로 과감한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안규홍은 본래 머슴 출신으로 자신의 동료인 머슴과 빈농 세력을 주축으로 하고 일부 해산된 군대를 흡수하였다.

전해산 의병장(1878~1910)은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기홍, 자는 수

용, 호는 해산(海山)이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하자, 그해 겨울 이석용과 같이 전북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김태원과 연합하기 위해 나주로 왔으나 김태원은 이미 순국하였다. 1908년 6월 정원집의 추대를 받아 의병장이 되었다. 첫 전투는 1908년 7월 25일 영광 불갑산 전투였다. 선봉장이 천보총을 쏘아 두어 명을 사살하고 적을 유인하여 기마병들을 죽이고 무기를 빼앗았다. 이외에도 순창·담양 등을 거쳐 광주 대치에서 다시 적과 대적하여 많은 적을 사살하고 총과 탄환, 군복 등을 노획하였다. 광주를 거쳐 1910년 1월 대구감옥소에 이감되어 심남일과 함께 7월 18일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1908년 5월과 7월에 광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의병을 일으켰다. 양진여·양상기의 의병장이 그들이다. 양진여(1860~1910)는 광주군 서양면 니동에서 태어났다. 양진여는 1908년 7월 삼각산 죽청봉에서 30명으로 거병하고 대장으로 추대되었다. 거병 초기 일본인 우편체송인을 살해하는 등 일본인을 응징하기도 했지만, 일본군 토벌대의 주 토벌 대상이 되면서 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 1908년 10월의 신촌전투와 11월의 대치, 추월산 전투가 대표적이다. 양진여는 일본의 추격을 피해 장성군 갑향면 향정리에 잠복했지만, 1909년 8월 26일 체포, 1910년 5월 30일 대구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양상기(1883~1910)는 농민 의병장 양진여의 장남이었다. 키가 8척 거구였던 그는 광주경찰서 순사가 되었다. 부친이 거병을 준비 중인 시점에서 순사로의 취업은, 일제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위장이었다. 부친의 거병 준비로 1908년 4월 순사직에서 면직되자 1908년 5월, 40명으로 거병하여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한국(韓國)의 복구’를 주창했던 양상기 부대의 활동은 군자금 모금, 밀고자 및 일진회원 처단, 헌병분견소 방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늘이 거둬 푸르고, 달빛 밝으니, 못된 귀신 되어서라도 왜적을 섬멸하리. 섬나라 오랑캐를 멸하지 않으면 죽어 혼백일지라도 돌아오지 않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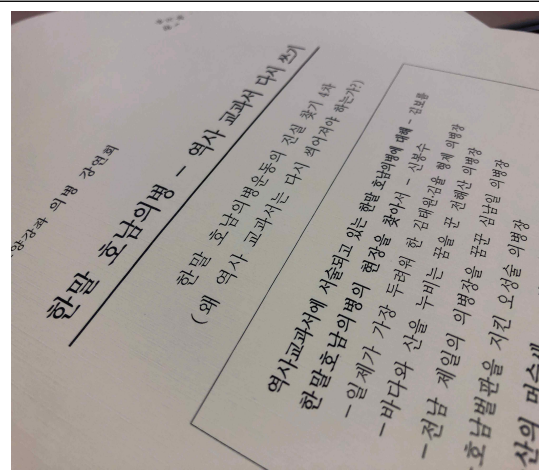
어등산에서 순국한 조경환(1876~1909) 의병장이 남긴 시의 한 구절이다. 1908년 4월 25일 어등산에서 김태원 의병장이 순국하자 흩어진 의진을 재정비한 조경환은, 이석용부대에서 활동하였던 전해산과 함께 새롭게 부대를 정비하였다. 일본군은 1909년 초 조경환 부대를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다. 조경환 부대는 전사 20명, 체포 10명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조경환 의병장도 순국하였다. 그의 나이 33세였다.

황병학(1876~1931)은 광양 진상면 비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1905년 5월부터 의병 봉기를 계획하였다가 1907년 정미7조약 체결 이후, 드디어 의병을 일으켰다. 최초의 전투는 1908년 8월 5일 광양군 진월면 망덕만 전투였다. 황병학은 망덕 포구

에 일본 선박 10여 척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특공대를 편성하여 여러 척의 선박을 침몰시켰다. 10여 척의 일본인 가옥을 불태우고 다수의 일본인을 사살하였다.

황병학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여천 앞바다에 있는 묘도로 이동하였다. 특히 ‘남한대 토벌작전’으로 타격을 입고 재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황병학 의병장은 국권 회복의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였다. 11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 차장으로 활동하던 일강 김철의 도움으로 만주로 망명하였다. 의병 전쟁 중에 입은 총상의 악화, 일경에 당한 고문의 후유증, 그리고 4년여에 걸친 감옥 생활로 인해 1931년 55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정부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충절과 의리를 기본 정신으로 삼는 호남인들, 그들은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그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이다. 이순신이 이야기 한 대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그대로다.



한국학 교양강좌 의병강연

04 한말 호남 의병, 왜 교과서는 다시 씌어져야 하는가?

발표 역사교과서에 서술되고 있는 한말 호남 의병에 대해 - 김보름 / 한말 호남 의병의 현황을 찾아서 - 신봉수

2019. 11. 6(수) 오후 6시~8시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기쁨관 201호 주최 제천국학호남진흥원 주관 사단법인문인동고송

황지우 시인 미학강연회(2019.9~10월, 4회 강연)

해남 녹우당 <문학인의 집 백련재>에서 황지우 전 한예중 총장으로부터 ‘칸트미학’을 주제로 4회 초청 강연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칸트와 헤겔 미학 그리고 현대예술사조에 대해’로 전남 지역 중등교사와 동고송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녹우당(綠雨堂)의 당호는 집 뒤 비자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비가 내린 듯 소리가 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녹우당은 고산 윤선도의 고택이자 해남 윤씨의 종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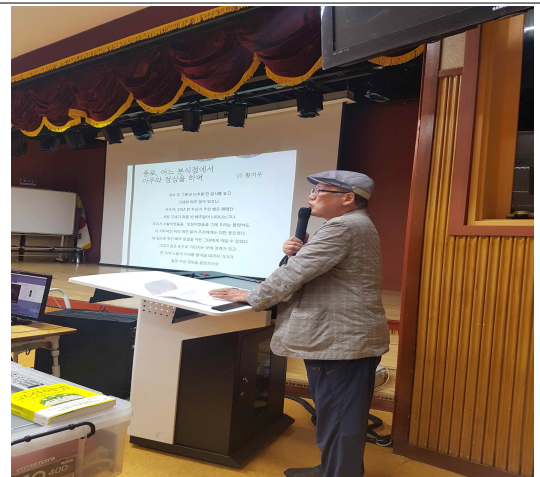
김규중 교수 인문특강(2020.1월)

김규중 교수의 <안톤 체호프와 그의 시대>, <유라시아와 격동의 20세기>를 주제로 한 인문 특강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인문학강좌(2020.6월~7월)

황광우 상임이사는 광주과학고와 광주제일고의 학생들에게 ‘의향 광주의 역사적 뿌리’에 대한 강연과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끈 자랑스런 빛고을의 인물 네 분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1972년 ‘함성’과 ‘고발’을 작성 유포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박정희 유신 체제를 향한 투쟁의 깃발을 올린 김남주의 삶과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진압군의 총격에 유명을 달리한 윤상원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동포 청년들과 함께 조국의 민주화를 돕는 청년단체 ‘재미한청련’을 만든 윤한봉의 일대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금희의 오월’과 ‘모란꽃’, ‘청실홍실’로 이어져 오월 광주 3부작을 창작한 극작가 박효선의 활동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장 석 시인 시집 출간회(2020.6.6)

장석 시인의 신간 시집 『사랑은 이제 막 태어난 것이니』 『우리별의 봄』의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식순

1. 이은향
2. 시인 장석
3. 유홍상 이사장님 축하 말씀
4. 축하말
5. 장석 시인 말씀
6. 유홍상 이사장님 연주
7. 박문철 선생님 축하
8. 유대호님 - 장악 최용 찾아서
9. 이남을 (장석회 박현수 이은주)
10. 시인에게 묻는다
11. 황광두 선생님의 "벗에게"

노성태 선생 출간회(2020.8.17)

광주국제고 역사교사 노성태 선생의 신간 『노성태, 역사의 길을 걷다』의 출간을 축하하는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장재성 선생 흉상 제막식(2020년.10.3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이신 장재성 선생의 흉상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광주일고 소재)에 건립되었습니다.

“빼앗긴 나라, 노예로는 살 수 없었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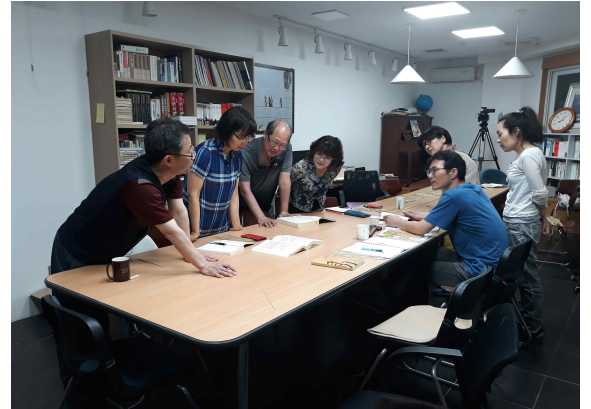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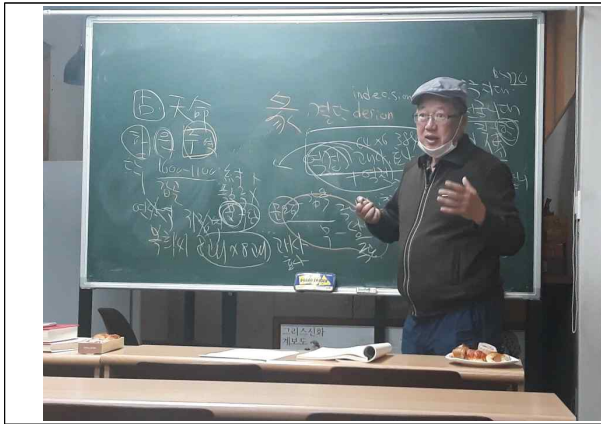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이끈 선봉, 당신의 열을 새기나니,

선생이여, 무등의 빛이여, 길이 빛나시라”



동고송 고전공부모임(2020년 1월~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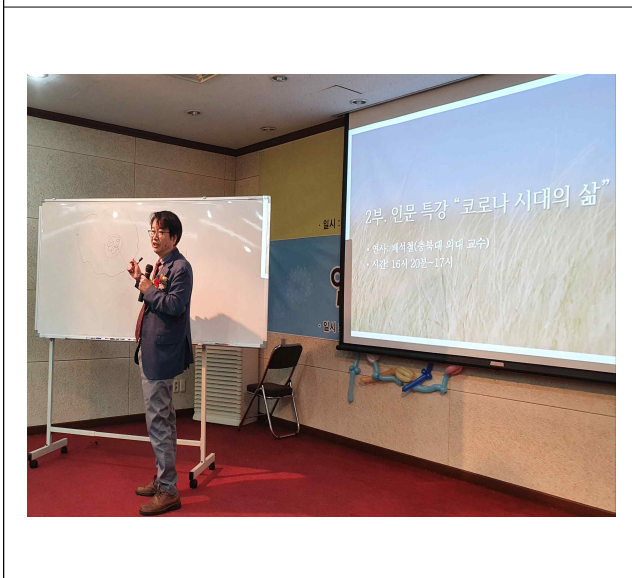
2020년에는 셰익스피어 희·비극선 작품을 읽고 토론하였으며, 황광우 작가의 안내로 『주역』 64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임시총회 • 인문특강(2019.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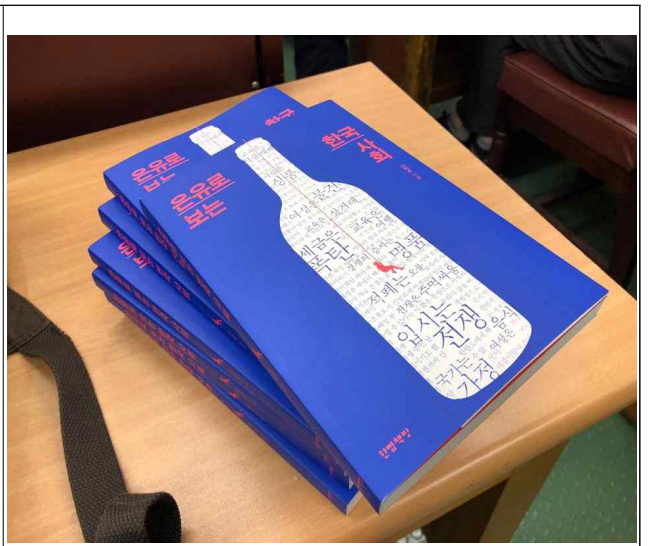
사)인문연구원 '동고송(冬孤松)'은 광주 북구 독립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2층 (광주일고)에서 2020년 동고송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임시총회 '정관 변경의 건'과 2부 인문특강 배석철 충북대 의대 교수의 '코로나 시대의 삶', 3부 나익주 작가 '은유로 보는 한국사회' 출판기념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동고송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석철 교수는 우리나라 의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이룬 연구자로 이날 '코로나 시대의 삶'의 강연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갈채를 받았다. 배 교수는 평소에 “연구한다는 것은 어둠 속,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곳에서 무엇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더듬는 수밖에 없지요.”라고 말하며 연구실에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나익주 작가 책 출간회(2019.11.21.)

<오마이뉴스> 「'은유'라는 거울로 비추어 본 한국 사회」 글을 쓴 이창봉 교수는 “나익주 선생님의 책 『은유로 보는 한국사회』는 학자의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날카로우며 그 힘이 선용되었을 때 얼마나 의미 깊은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좋은 책이다. …… 이 책의 독창적이고도 빼어난 분석 시각과 내용 뒤에는 저자의 언어학자로서의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사회 현상의 근간을 파헤치는 치밀함과 그러면서도 전체 숲의 모습을 조명하고 진단하고 전망하는 혜안이 깔려 있다.”라고 하였다.



인문은 나에게 무엇인가?

황광우 작가,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상임이사

2019년 활동 보고

2019년 4월 19일 나는 지인들과 함께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을 창립하였다.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은 광병찬 기자의 『향원익청』 출판기념 잔치를 열어, 빗고을에 인문의 향기를 뿜었다. 지난 10월엔 황지우 시인의 “칸트 미학 강연”을 진행하여, 빗고을 시민들의 미학적 교양을 높였다. 현재 홍영기 교수, 노성태 선생과 함께 “한말 호남 의병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향 광주의 역사적 뿌리를 빗고을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또 동고송의 고전공부모임에서는 최명희의 『혼불』 읽기를 하고 있다. 최명희의 문학을 통해 지난 시대 우리 여인들의 한을 고찰하고 있다. 위당 김재희 선생과 함께 『주역』을 공부했으며, 황광우와 함께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강독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우리 시대와 2500년이나 떨어져 있으나, 철인의 음성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나는 올 해 들어 ‘전라도 닷 킴’에 매월 한 편의 독후기를 쓰고 있다. 임광호의 『오월 맑음』과 최명희 『혼불』, 버나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와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 김용옥의 『우리 너무 몰랐다』를 연재했다. 할 수만 있다면 전라도의 흔적이 담긴 책들을 읽고 나의 감상을 쓰려고 한다. 또 ‘남도일보’에 매월 광주의 의인들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봄과 여름에 김남주와 윤상원, 윤한봉과 박효선을 썼고, 가을에 기삼연과 김준에 대해 썼다. 의향 광주의 뿌리를 천착하는 과정에서 흘린 땀의 소산이다.

2019년 8월 동고송은 독일-스위스-프랑스를 방문하여, 그곳에 얽힌 인문의 흔적을 찾았다. 트리어에 있는 마르크스 생가를 방문하였고, 바젤에서 니체를 만났다. 취리히에선 망명 시절 레닌이 묵었던 숙소를 보았고, 학창 시절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대학을 보았다. 제네바에선 종교개혁운동의 선구자 칼뱅의 유적들을 두루 보았다.

아, 빠뜨려서는 안 되는 보고사항이 하나 더 있다.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은 자신의 흠

페이지를 만들었고, 여기에 인문의 향기 가득한 글들을 올리고 있다. 오시어, 보시라.

우리는 홈페이지와 독자를 연결하는 인문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참으로 힘들여 만들었다. 이 인문통신 시스템 덕택에 우리는 주요 칼럼을 1,000여 명의 독자들에게 빛의 속도로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지난 유럽 인문기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행문을 인문통신에 올렸다. 많은 독자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어 좋았다.

인문, 그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2020년 새 해의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0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동고송의 활동가들을 당혹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뜻 2020년의 활동 계획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없는 미래의 종이 위에 그 어떤 의미 있는 기획을 떠올리는 일은, 늘 고통스럽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은 많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기획의 필연성을 확신하지 못하여 주저할 것이다. 여기에서 “인문, 그것은 나에게 무엇인가?”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나의 삶에서 인문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앞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인지 생각하고 싶다.

지난 2006년 나는 『철학콘서트』를 발간했고, 2009년 전남대 철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52세 늦깎이 학생이 되었다. 2011년엔 몇몇 교사들과 함께 고전공부모임을 꾸렸다.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 공부모임을 거쳐 갔다. 지금도 20여 명과 만나고 있다. 2014년엔 부정기 무크지 『인문의 향연』을 발간했는데, 재정의 빈약으로 중도 하차하였다. 그리고 올 해 4월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을 창립하였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 13년의 세월 동안 나는 인문과 함께 살아온 셈이다. 인문을 매개로 벗을 만났고, 벗들과 인문을 공유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장년의 13년을 나는 송두리째 인문의 제단에 헌납한 것이다.

광주나 전남의 중고등학교에서 가끔 나에게 인문 강연을 요청한다. 그때마다 나에게 프로필을 요구하는데 나는 내가 살아온 흔적을 이렇게 정리하여 보낸다.

1975년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모의하다 투옥, 체적되다.

1978년 6개 대학 연합시위 관련, 긴급조치 9호 위반, 2년형을 선고받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체적, 수배되다.

1984년 인천 경동 산업에 노동자로 입사하다.

1986년 부평역 앞 고공 시위 주도, 수배되다.

1986년 5.3 인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되다.

1987년 6월 26일,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창립을 선포하다.

한 눈에 보아도 나의 20대는 정치투쟁과 노동운동으로 점철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30대와 40대 역시 진보정당을 세우는 일,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일로 이어졌다. 따라서 사람들이 나의 전력에서 투사의 거친 이미지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 어느 한 순간에도 고전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투사의 길을 걷기 이전에도, 형사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할 때에도, 치안본부의 미행을 피하면서 지하를 암약할 때에도, 마침내 지상으로 나와 합법적 활동을 할 때에도 나는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죽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상 사회는 무엇인가?’ 돌이켜 보면 나는 투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문 학도였다.

나는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였다. 1984년 출간한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소외를 극복한 사회, 그것이 내가 설정한 한국 사회의 미래상이었다. 내가 소외 개념을 마르크스로부터 배운 것은 사실이지만, 온종일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아주머니들의 파리한 표정에서 나는 소외의 ‘소외성’을 온 몸으로 느꼈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근거엔 늘 삶의 근거를 향한 인문 정신이 도사리고 있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과거를 찾는다. 아니 미래의 전망을 찾고 싶을 때, 우리는 과거에 묻는다. 광주항쟁을 겪고, 어두운 죽음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나는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역사를 찾았다. 더 이상 길을 말해주는 선생이 없을 때, 우리는 무덤에 누운 현자를 찾는다. 공장을 다니면서도 나는 청계천 고서적을 뒤졌다. 1985년 2월 나는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이라는 표제를 달고 나온 소책자의 초고를 이렇게 집필하였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은 노동해방의 대의를 퍼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치고 주연을 가지면 우리는 공자와 석가, 노자와 예수를 논하였다. 우리에게 마르크스는 괜찮은 사상가의 한 명이었다. 이런 인문적 성찰에서 나는 1991년 『뗏목을 이고 가는 사람들』을 집필하였다.

소련공산당이 몰락하였고, 나는 우리가 추구했던 사회주의 이념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만들어야 새로운 사회에 관한 상을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르크스시즘, 어디까지 유효하고, 어디부터 버려야 할 것인가? 이 고통스런 물음을 풀기 위해, 마르크스를 넘어서기 위해, 나는 플라톤을 찾았고, 소크테스를 만났으며, 호메로스를 보았다. 『논어』를 다시 읽었고, 『도덕경』을 다시 읽었으며, 『주역』을 다시 읽었다. 세계를 보는 나의 눈은 좀 더 관대해졌고, 넉넉해졌으며, 풍요로워졌다. 2006년 나는

『철학콘서트』를 집필했다.

“인문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투옥되고, 수배되고, 지하 생활을 하면서, 나는 투사의 삶을 살았지만, 알고 보면 나의 삶을 이끌어준 정신의 힘은 온전히 ‘인문’에서 나왔다. 인문은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한 나의 탐색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가장 아픈 곳을 감지할 수 있는 촉수를 주었다. 뿐만이 아니다. 인문은 투쟁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었다.

인문은 이데올로기 보다 더 깊은 것이었고, 인문은 이데올로기 보다 더 민감한 것이었으며, 인문은 이데올로기 보다 더 원대한 것이었다. 나에게 인문은 철학과 종교였고, 시와 예술이었으며, 진정한 혁명 강령이었다.

2020년 무엇을 할 것인가?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회원들은 “2020년 무엇을 할 것인가?”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출해야 한다. 나의 머리에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다.

1. 유럽에 가면, 그네들은 고대와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여 있는 공간에서 거주한다. 잘 알다시피 광주 읍성이 파괴된 것은 1912년이였다. 이후 광주는 과거를 망실하였다. 나는 한국인인데, 유럽의 사유 틀로 생각한다. 나는 조선놈인데, 일상의 삶 모두가 서양인의 삶을 복제한 것이다. 지긋지긋하다.

단절된 역사를 잇고 싶고, 망실된 역사를 복구하고 싶다. 지난 5년 동안 연구한 『운사유고』가 『마지막 선비』라는 이름을 달고 곧 출간될 것이다. 1897년에 태어났고, 1975년에 돌아간 마지막 선비 운사 여창현의 삶과 고뇌에 대해 이곳저곳에 가서 강연을 할 것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 장재성 선생이 아직도 서훈되지 않고 있다. 1929년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 말로는 말이 떠들면서도, 그 주역들이 서훈조차 되고 있지 않다니, 이거 창피하여 살 수가 없잖은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광주의 뜻 있는 분들과 함께 장재성 씨의 서훈을 추진하고 싶다.

2. 2020년은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의 해이다. 광주민중항쟁의 참된 계승은 오월단체만의 과제가 아닐 것이다. 인문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나는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항쟁정신과 대동정신이라고 본다. 과연 우리는 대동정신을 구현하고 있는가? 묻고 성찰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3. 우리는 공부모임의 커리큘럼을 바꿀 것이다. 『혼불』 읽기를 마치고 『셰익스피어』 읽기로 넘어가고자 한다. 아마도 2020년에 다시 만나는 셰익스피어는, 내 생애 있어서 마지막 만나는 셰익스피어가 될 것이다. 62세에 읽는 셰익스피어는 10대에 읽었던 셰익스피어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벌써 설렌다.

나는 우리 도반들과 함께 칸트와 헤겔을 읽고자 한다. 근대인의 사유를 칸트로부터 배우고자 한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 철학서를 과연 돌파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욕심 내지 않고 조금씩 읽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역 64괘의 패사를 읽어 나가하고자 한다. 지난 3천년 동안 동아시아의 선비들이 이 패사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면, 싫든 좋든, 한번쯤 주역의 패사를 읽어볼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4. ‘전라도 닷컴’의 독후기와 ‘남도일보’ 칼럼은 계속 쓸 것이다. 인문통신은 또 이 글들을 독자들에게 연결할 것이다. 우리는 공부모임의 텍스트, 셰익스피어와 칸트에 대한 공부 내용도 독자들에게 중계하고자 한다. 2020년에도 우리의 유럽 인문 기행은 계속될 것이며, 여행기 역시 계속 작성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에 제안한다. 2박 3일의 인문 대회를 열어 달라. 깊은 산속 야영도 좋고, 바닷가 해변도 좋다. 인문을 사랑하는 인문 애호가 100여 명을 조직해 달라. 2020년을 이끄는 인문 주제를 놓고 각 그룹마다 나와 발표하는 것은 어떤가? 묻고 답하고, 논쟁한다면 더욱 잔치는 풍성해질 것이다. 신명이 넘치는 빛고을을 만들어 보자. 나는 인문으로 풍요로운 빛고을을 기대한다.

2019년 10월 23일 황광우 씀

※ 2019년도 결산

【상세내역】

1. 수입

관·항·목		금액(원)	비고
1. 회비 및 기부금	회비	13,243,275	
	기부금	17,000,000	6월 개시
	소계	30,243,275	
2. 보조금	보조금		
3. 이월금	전기이월		
합 계			30,243,275

2. 지출

관·항·목		금액(원)	비고
1.목적사업 I	1. 광주이사 상견례	1,085,000	광주이사모임
	2. 서울이사 상견례	480,000	서울이사모임
	3. 동고송창립식행사	2,577,750	4월19일
	4. 유럽인문기행지원금	1,000,000	독일, 스위스, 프랑스
	5. 인문도서 구입 및 보급	1,250,000	회원 증정용
	6. 인문학 특강	1,500,000	문학강연 2회 미학강연 5회
	7. 호남의병 연구지원	1,850,000	연구비, 자료복사제본
	8. 홈페이지 개설 운영	2,500,000	1차-5차
	9. 『향원익청』 출판회 보조	300,000	
	10. 법인 설립 준비 및 등기 비용	569,000	
	11. 동고송 광고 게재	750,000	1차-3차, 전라도닷컴
	12. 의병 강연회 준비회의	785,000	1차-7차
	13. 동고송 리플렛, 봉투, 명함제작	1,378,000	심미안인쇄
	(I) 소계		16,024,750
2.목적사업II	1. 회의비	2,150,000	창립준비회의(1차-10차)
	2. 운영위 회의비	1,385,000	운영위, 사무국, 편집국 회의(6월-12월)
	3. 사무국활동비	4,500,000	6월-12월

	(II) 소계		8,035,000	
3.관리비	사무용품비	집기구입비	550,000	
		사무용품비	646,500	
		소계	1,196,500	
	유지비	임대료	900,000	4월-12월
		CMS관리비	340,000	
		제세공과금	197,000	재산세, 주민세 등
		소계	1,437,000	
	통신비	전화	389,460	
		우편	280,770	
		소계	670,230	
	복지비	4대보험		
		경조사비	200,000	
		소계	200,000	
법인세		100,000		
(III) 소계			3,603,730	
4. 이월금	차기 이월금		2,579,795	
	(IV) 소계		2,579,795	
합 계 (I + II + III)			30,243,275	

※ 2020년도 결산

【상세내역】

1. 수입

관·항·목		금액(원)	비고
1. 회비 및 기부금	회비	33,140,095	
	기부금	11,000,000	
	소계	44,140,095	
2. 보조금	보조금		
3. 이월금	전기이월		2,579,795
합 계			46,719,890

2. 지출

관·항·목		금액(원)	비고
1. 목적사업 I	1. 인문학 도서 출판기념회	2,000,000	연 4회
	2. 작은도서관 동고송 준비비	415,300	
	3. 인문도서 구입 및 보급	2,950,000	회원(110명) 증정1차-2차, 우송료
	4. 인문학 특강 강연료	1,200,000	김규중, 이동순, 배석철
	5. 역사달력 제작 DB작업	1,500,000	연구비, 연구자료비
	6. 인문통신	3,440,000	연 홈페이지관리비, 스티비 서버, 원고료, 책보세
	7. 인문학유튜브(동동프로젝트)	3,903,830	강사료, 촬영편집, 장비구 입, 활동비, 소모품
	8. 광주정신 선양사업	1,000,000	'의향광주뿌리찾기' 사업
	9. 학술 탐방	570,000	축령산, 무등산
	10. 하계 워크숍	545,000	전남대 장성수련원
	11. '동고송 보고자료집' 제작	1,336,800	120부 회원증정, 우송료,
	12. 행사장소 사용료	200,000	
	13. 현악연주회 초청	300,000	
	14. 사무국활동비	1,200,000	1월-12월
	(I) 소계	20,560,930	
2. 목적사업 II	1. 회의비	1,225,000	임시총회, 이사회, 이 사장단모임

	2. 운영위		870,000	1월-12월
	3. 사무국 인건비		14,400,000	1월-12월
	(II) 소계		16,495,000	
3. 관리비	1. 사무물품비	집기구입비	357,427	
		사무용품비	263,500	토너, 문구 등
		소계	620,927	
	2. 유지비	임대료	1,200,000	1월-12월
		CMS관리비	470,400	
		제세공과금	231,670	재산세, 주민세 등
		소계	1,902,070	
	3. 통신비	전화	564,390	
		우편	391,404	
		소계	955,794	
	4. 복지비	4대보험	878,630	
		경조사비	300,000	화환
		소계	1,178,630	
법인세		100,000		
(III) 소계			4,757,421	
4. 이월금	차기 이월			4,906,539
	(IV) 소계			4,906,539
합 계 (I + II + III + IV)				46,719,890

※ 2021년도 예산

【상세내역】

1. 수입

관·항·목		금액(원)	비고
1. 회비 및 기부금	회비	36,000,000	
	기부금		
	소계	36,000,000	
2. 보조금	보조금		
3. 이월금	전기이월		4,906,539
합 계			40,906,539

2. 지출

관·항·목		금액(원)	비고	
1. 목적사업 I	1. 인문학 도서 출판기념회	1,000,000	연 2회	
	2. 인문학 유튜브 제작 프로젝트	4,020,000	연 24회	
	3. 역사탐방	3,000,000	연 6회	
	4. 인문도서 구입 및 보급	800,000		
	5. 인문학 특강	800,000		
	6. 역사달력 제작	3,600,000	인쇄비, 연구비, 우송료	
	7. 인문통신	2,800,000	홈피관리, 스티비 서버, 원고료, 책보세	
	8. 광주정신 선양사업	2,000,000	'의향광주뿌리찾기' 사업	
	(I) 소계	18,020,000		
2. 목적사업 II	1. 회의비	900,000	운영위, 이사회, 총회	
	2. 상임이사 활동비	3,600,000	1월-12월	
	3. 사무국 인건비	14,400,000	1월-12월	
	(II) 소계	18,900,000		
사무물품비	집기구입비	300,000		
	사무용품비	200,000	토너, 문구 등	
	소계	500,000		
	유지비	임대료	1,200,000	1월-12월
		CMS관리비	500,000	

3. 관리비		제세공과금	100,000	재산세, 주민세 등
		소계	1,800,000	
	통신비	전화	400,000	
		우편	200,000	
		소계	600,000	
	복지비	4대보험	786,539	
		경조사비	200,000	
		소계	986,539	
	법인세		100,000	
	(Ⅲ) 소계			3,986,539
	합 계 (Ⅰ+Ⅱ+Ⅲ)			40,906,539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문연구원 동고송”(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인문학을 연구하고 재해석하며, 의향 광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홍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인문학을 연구하는 활동
2. 인문학 연구 성과를 출간하는 활동
3.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 활동
4. 시민들의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강연 활동
5. 인문통신을 발송하는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선출한다. 임원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메일 SNS 등 전자문서 포함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 작성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① 본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본회는 당해 연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주요 활동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유용상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황광우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나익주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고용호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김용범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이은주 (서명 또는 날인)

발기인 이무성 (서명 또는 날인)

동고송 임원 이사 및 회원 현황 (2021년 1월 현재)

□ 임원

- 이 사 장 : 유용상
- 부이사장 : 이규, 나익주
- 감 사 : 이무성
- 상임이사 : 황광우
- 운영이사 : 노성태, 박전일, 박광열, 조세경, 박 찬, 고용호
- 이 사 : 장 석, 김용범, 최건섭, 정석구, 배석철, 허경도, 박갑주, 강정희, 민영돈, 이형연, 한병곤, 박현주, 홍승기, 곽병찬, 안재성, 정광필, 임창노, 유미정

□ 2020년 회비 및 후원금 기부자 (120명)

고용호, 구인회, 강정희, 강양구, 김건혁, 김다욱, 김동민, 김동현, 김 데레사, 김득룡, 김목, 김명수, 김보름, 김상준, 김석주, 김성희, 김신희, 김승남, 김승일, 김순흥, 김양래, 김용범, 김은미, 김은주, 김용준, 김용표, 김예자, 김정은, 김종미, 김주승, 김지은, 김제안, 김현아, 김홍식, 김효중 나익주, 노성태, 맹비오, 문지성, 문혜경, 민영돈, 박광열, 박갑주, 박민아, 박석준, 박영화, 박일서, 박전일, 박정순, 박 찬, 박현주, 배석철, 범혜영, 손동연, 손희숙, 신민희, 신봉수, 신흥주, 심승남, 안남열, 안정주, 안현순, 양국선, 양미현, 오창훈, 이 규, 이무성, 이문재, 이세천, 이정숙, 이주림, 이은주, 이창봉, 임명규, 임영관, 임형철, 유기상, 유미정, 유수빈, 유신정, 유용상, 유은정, 유정숙, 유혜정, 이종범, 육철수, 윤성석, 윤영상, 윤정근, 윤태원, 임동국, 위평량, 장석, 장익준, 장춘석, 정재훈, 정우나, 정석구, 정현경, 정현숙, 제갈경희, 조승수, 조세경, 조영길, 주종섭, 지유미, 최건섭, 최봉근, 최영주, 최홍석, 한요섭, 한병곤, 홍범택, 황광우, 황준영, 황준혁, 황지우, 황행자, 허경도, 허순이